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
		배포일시	2018. 3. 19.(화)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공항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박연진, 사무관 박선용, 주무관 김은철 • ☎ (044) 201-4333, 4305	
	해외건설 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성호, 사무관 문봉섭 • ☎ (044) 201-3521	
보 도 일 시		2018년 3월 19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18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중남미 해외건설 수주 위해 팀 코리아가 댐다

페루·코스타리카에 민관합동 수주지원단·공항철도 분야 협력방안 논의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페루와 코스타리카에서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고, 기반시설(이하 인프라)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.16(토)부터 3.27(수)까지 김용석 공항항행정책관과 이건기 해외건설협회장을 공동단장으로 한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을 파견했다.

* 수주지원단에는 한국공항공사,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, 철도시설공단, 도화엔지니어링 등이 참여

○ 이번 수주지원단은 페루와 코스타리카의 인프라 분야 주요 장관 등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공항·철도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의 수주 지원은 물론 인프라 협력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.

□ 이번 수주지원단의 예정된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.

1. (페루) 친체로 신공항, 메트로 3·4호선 등 대형사업 수주 총력

□ 페루는 넓은 국토(한반도 6배 수준)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, 국제통화기금(IMF)에서 발표하는 중남미 경제성장률('19년) 중 가장 높은 4%를 기록하는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다.

- 또한, 국토균형 발전을 위하여 도로 및 철도망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, 수처리 및 상하수도, 전기 등 공공서비스 확대에 지속 노력중으로 향후 건설·인프라 시장 확대가 전망된다.
- 수주지원단은 페루 교통통신부가 정부간계약으로 추진 중인 친체로 신공항 건설 및 운영 사업(총 5억불, 6월 입찰결과 발표), 메트로 3·4호선 건설 사업(약 100억불, 4분기 입찰)의 수주를 위하여 대통령(잠정), 교통통신부 장관, 공항관계자 등과 잇달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.
- 친체로 신공항 개발 사업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프랑스, 캐나다, 미국 등 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바, 우리정부는 우리나라의 공항 운영을 대표하는 한국공항공사와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엔지니어링사들로 컨소를 구성하였으며, 친체로 신공항이 남미를 대표하는 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.
- 또한, 올해 하반기 입찰이 예상되는 메트로 3·4호선 건설 사업에 대하여 메트로 2호선 시공감리사업을 수주(도화 엔지니어링, '15)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기업 참여 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이다.

2. (코스타리카) 철도사업 수주지원 및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

- 코스타리카에서는 지난해 10월 코스타리카 영부인이 방한하여 김현미 장관과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양국 간 협력 관계가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사업수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- 향후 입찰 예정인 산호세 광역철도 건설사업(약 16억불, '20년 입찰), 리몬 화물철도 현대화 사업(타당성 조사 75만불, 3월 입찰 / 본사업 약 4.5억불, '20.下 입찰)의 수주를 위해 대통령 영부인(잠정) 및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며,

- 아울러, 산호세 광역철도 사업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공적개발원조(ODA) 사업 및 고위급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 초청 연수사업, 한-코스타리카 철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(MOU) 체결 추진 등 인프라 협력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.
- 이 밖에 현지에서 땀 흘리며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건설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중남미 시장은 앞으로 건설·인프라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.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페루와 코스타리카에서 실질적인 수주성과를 창출할 뿐 아니라,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수주경쟁력이 높아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”한다면서,
- “정부는 해외건설 수주 제고를 위하여 정부·공공기관·민간이 함께 팀 코리아(Team Korea)를 구성하고 금융지원 확대, 정보공유, 역량강화 등 수주역량도 개선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